

<기억을 달리는 소년>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흔들리며 나아가는
노비 소년 사훈이의 가슴 뜨거운 여정!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로 기억의 힘을 전하는 역사 동화



정명섭 글 · 신진호 그림

10세 이상, 초등 중 · 고학년

사훈이는 노비로 태어나 자신의 운명에 그저 순응하며 살아왔지만, 글을 알려 준 스승과 단종을 만나면서 비로소 자신의 삶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다양한 가치관을 만나고 우리가 사는 세계에 더욱 관심 갖는 일은 중요합니다. 조선 전기, 거대한 역사의 한복판에 들어선 이들의 웃음과 눈물이 어우러진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초등 교과 연계

- 4-2 국어 1. 이어질 장면을 생각해요
- 5-2 사회 3. 민족 문화를 지켜 나간 조선
- 6-2 국어 8. 작품으로 경험하기

중등 교과 연계

- 역사 ② 4. 조선의 성립과 발전



1. 내가 알고 있는 낱말에 동그라미를 해 보세요.

조선 수양 대군 노비 단종 관아 사육신과 생육신 피끓마을

2. 1에서 동그라미 한 낱말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아래 예시처럼 문장으로 써 보세요.

• 조선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세운 나라. 세종 대왕, 이순신, 신사임당은 모두 조선 시대 사람이다.

3. 책의 시대적 배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읽고 물음에 답하여 보세요.

단종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단종의 삼촌인 수양 대군은 어린 조카의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신하들은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는 복위 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벼슬을 버리고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1) 시대적 상황을 보았을 때, 이 책 속 인물은 어떤 갈등을 겪을 것 같은지 예측해 봅시다.

예측되는 갈등이나 사건 : _____

그렇게 생각한 이유 : _____

(2) 단종과 수양 대군의 입장이 되어 어떤 마음일지 상상해 적어 봅시다.

단종의 마음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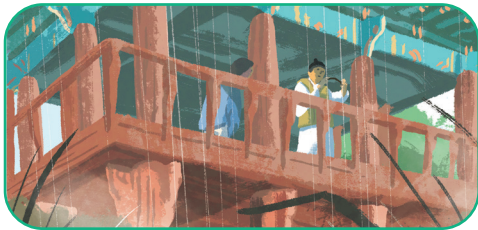
수양 대군의 마음 : _____

1. 삽화를 보며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관노비인 사훈은 오작인 유훈창에게 몰래 글을 배운다.





사훈은 상왕 전하께 갓끈을 전하며 상왕 전하를 복위시킬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한다.







사훈은 사육신의 묘를 찾아갔고,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육신의 역사를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다짐한다.

2. 빈칸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인물의 이름을 찾아 써넣으세요.

“우리는 그림자 같은 존재야. 남들 앞에서 될 수도 없고, 튀어서도 안 된다. 그냥 조용히 지내면서 노비 신세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노려 보는 게 최선이야.”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면 언제 죽어도 두렵지는 않단다. 다만, 뜻을 이룰 수 있다면 더욱 기쁘겠지.”

“어리석은 대군이시여. 이곳에서 역모를 꾸민다고 성사될 줄 알았습니까?”

“그건 너의 전하고, 나의 전하는 저쪽 영월에 계시다.”

활동 ③ 내가 그 인물이라면?

독서 중

1. 책의 인물들은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행동을 했습니다. 아래 질문에 인물의 입장이 되어 답해 보세요.

(1) 사훈

- 사훈은 글을 배울 필요가 없지만 글을 배웁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 내가 만약 사훈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만약 사훈이라면, _____

왜냐하면 _____

(2) 유훈창

- 유훈창은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왜 복위 운동을 했을까요?

- 내가 만약 유훈창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만약 유훈창이라면, _____

왜냐하면 _____

(3) 사훈의 아버지

- 사훈의 아버지는 왜 금성 대군과 측근들을 고발했을까요?

- 내가 만약 사훈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만약 사훈의 아버지라면, _____

왜냐하면 _____

활동 ④ 옛사람들의 모습에서 나를 돌아봐요

독서 후



1. 책 속 인물들은 각자 살아가는 이유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는 어떤 이유로 살아가고 싶은지 적어 보세요.

유훈창은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 살아간다.

사훈은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살아간다.

나는 _____.

2. ‘역사는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훈이와 함께 조선 시대 전기를 만나 본 것처럼 다음에는 어떤 시대, 어떤 인물의 삶을 더 알아보고 싶은가요?

예시 답안

• 활동 ①

2. 수양 대군: 세종 대왕의 둘째 아들로, 나중에 왕이 되어 이름을 세조라고 했다. 냉혹한 왕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강하게 남아 있다. / 노비: 조선 시대에 신분이 가장 낮았던 사람들이다. 자유가 거의 없었다. / 단종: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숙부인 수양 대군에게 자리를 빼앗겼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비운의 왕이다. / 관아: 조선 시대 관리들이 일하던 곳이다. 세금을 걷고 재판을 하는 등 나라일을 처리했다. / 사육신과 생육신: 단종을 끝까지 지키려 한 충신들이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사육신, 살아남아 뜻을 숨긴 사람들을 생육신이라고 한다.

3. (1) 예측되는 갈등이나 사건: 수양 대군이 왕위를 차지하려 하고, 이를 막으려는 신하들과 갈등이 생길 것 같다. / 그렇게 생각한 이유: 단종이 어리고 힘이 없어서 삼촌에게 권력을 빼앗길 수 있고, 충신들이 단종을 지키려 하면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2) 단종의 마음: 왕이 되었지만 너무 어린 데다 힘이 없어서 두렵고 외로웠을 것 같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 것 같다. / 수양 대군의 마음: 자신이 나라를 더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권력을 잡고 싶었을 것 같다. 하지만 조카에게 죄를 짓는다는 불안과 부담도 조금은 있었을 것 같다.

• 활동 ②

1. (2) 순흥 고을에 금성 대군이 유배를 왔다. 유훈창, 금성 대군, 순흥 부사 이보흠은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뜻을 함께 모은다. / (4) 유훈창은 사훈에게 상왕 전하의 복위를 도모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탕화를 뜯어 없애라고 한다. 사훈은 탕화를 물에 담가 찢어 버린다. / (5) 한명회는 군사들과 함께 순흥으로 와서 역모에 가담한 금성 대군, 이보흠, 유훈창과 그들의 가족을 모두 죽였다.

2. 철식 / 유훈창 / 한명회 / 금성 대군

• 활동 ③

1. (1) 사훈은 신분 때문에 배울 기회가 없었지만, 관아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배우고 싶다고 느꼈을 것 같다. / 내가 만약 사훈이라면, 글을 배우고 싶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가 직접 알고 싶은 것을 읽고 싶기 때문이다.

(2) 유훈창은 단종이 정당한 왕이라고 믿었고, 나라에 올바른 질서를 세우고 싶어서 복위 운동을 했을 것 같다. / 내가 만약 유훈창이라면, 조심스레 단종을 도우려고 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정의를 지키고 싶지만 목숨을 잃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다.

(3) 사훈의 아버지는 가족을 지키고 위험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권력자에게 잘 보여 살아남으려 했던 것 같다. / 내가 만약 사훈의 아버지라면, 자식을 숙량시키기 위해 옳지 않은 선택이라도 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가장으로서 가족이 편하게 잘 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였을 것 같기 때문이다.

• 활동 ④

1.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것을 나누고, 서로 이해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살고 싶다.

2. 나는 신라 시대의 화랑들이 어떤 마음으로 수련하고 나라를 지키려 했는지 더 알고 싶다. / 나는 세종 대왕 시대, 장영실이 발명품을 만들며 어떤 고민을 했는지 궁금하다.